

사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겨레의 마음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하는 12월 17일이다.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열의로 들끓은 온 나라에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의 열도가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평생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강성변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애국애족애민은 장군님의 천품이고 좌우명이었으며 생의 전부였다. 부강조국건설의 끈을 풀고 애국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언제나 주체의 기치높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는것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투철한 자주주의 사상과 신념, 불굴의 의지로 애국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신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 우리 공화국은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게 발양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강국,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성변영을 담보하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 나라로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되었다. 오늘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눈부신 비약과 기적으로 약동하는 조국의 기상은 장군님께서 마련해놓으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하고 고귀한 밑천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요하게 좌우하는것은 군력이다. 군력은 곧 국력이며 군력강화는 민족자주위업실현의 제일가는 중대사이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실천이었으며 그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었다.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는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는 철리를 밝히신 장군님께서서는 수십성장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위력을 가진 군사강국, 자위의 핵보유국으로 전면시키시고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였다.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민족성과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로 여기신 그이께서는 온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가장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실현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한평생 애국애족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열화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나라와 민족앞에 쌓으신 장군님의 업적은 세월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웠는 애국애족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려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열망이며 의지이다.

오늘 민족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적자질과 실력, 교배한 덕망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지난 2년세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

신 그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명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고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력사와 전통이 더욱 공고해졌다.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신 그의 정력적인 선

군령도에 의해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올해에도 조

국과 인민을 위한 불철주야의 애국헌신의 나날들을 수놓아오시였다. 내외호전세력들이 몰아오는 전쟁의 불구름을 밀어내시며 적이 지척에도 사라지고있는 위험천만한 무도와 장재도도 시찰하시고 오성산에도 오르시어 병사들에게 조국수호의 힘과 의지를 북돋아주시였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이 차체지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류경구강병원, 유류자동병원을 비롯한 인민을 위한 시설물들과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세계가 격찬하고 인민들이 찬탄하는 사변적인 성과들을 이룩해놓으신 그 특출한 령도실력, 크나큰 업적을 생각하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대를 이어 누리는 위인복을 배부로 절감하고있다.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실력과 시대성과 계승성, 진취성과 원칙성, 로속성과 령활성이 리상적으로 결합된 그의 정치에서 온 겨레는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굳게 확신하고있다.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 민족의 자주와 존엄도 있으며 인민이 만복을 누릴 천하제일강국의 그날도 오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도 성취될수 있다는 것을 옹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모시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그의 령도를 받들어나가야 한다.

얼마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에 감히 도전해나선 불순이색분자, 종파분자들이 적발속청되는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의 력사적인 조치는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뜻대로 끝까지 완수하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한중도 안되는 불순이색분자들이 단호히 제거됨으로써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더욱 순결해졌으며 일심단결의 반석같은 기반위에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도 더욱 힘차게 벌어질수 있게 되었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겠다는 불같은 결의들을 피력하고있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노래가 시대의 진군가로 이 땅, 이 하늘을 뒤흘고있다.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이시고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령도를 따라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애국성업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바쳐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변영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애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온 겨레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민족의 강성부흥과 통일변영을 위한 애국위업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력사와 더불어 겨레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그이께서 것처럼 바라시던 통일강성국가는 반드시 이 땅우에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자주위업에

민족의 아버지의 빛나는 한생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어느덧 두 해가 흘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지난 2년 세월은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맞고 보낸 날과 달이었으며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순간순간 폐부로 절감한 나날이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었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한 나라를 이런 든든한 강국의 반석위에 올려세우는 역사적인 위업은 천년만년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책임지는 위대한 애국자, 절세의 위인만이 실현할 수 있다.

인류정치사에 전무후무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화국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20세기말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악하고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조선이 그 모진 고난을 뚫고 솟아나리라고 생각한 세상사람은 얼마 안되었을것이다. 조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인류의 량심이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을 때 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의 투쟁을 현명하

게 이끄신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 전선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하시며 천리방선의 초소들을 찾으신 그 길에서 력사가 알지 못하는 족잡과 채기법, 야전리발과 같은 감동깊은 일화들이 생겨났으며 1211고지와 351고지, 판문점과 초도, 오성산과 철령의 험난한 전선길이 선군력사의 갈피에 력력히 새겨지게 되었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 그 험난한 전선길들을 회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헤쳐온 준엄한 선군장정의 길을 돌이켜보노라면 초도로 들어갈 때의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날 일이 나는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최고사령관을 안타깝게 기다리고있을 초도의 병사들을 위해 모험을 했습니

다. 실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장정은 누구나 걸을수 없는 사생결단의 길이었고 극한의 계선역에서 자주적인 국가들의 권리를 뽐내며 돌고돌고 피어린 공격적이었다. 조국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준 이 민족사적 위업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로씨야군사력사가인 원사, 교수, 박사 쾨르프코브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는 자기의 글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신세계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자주적인 국가들의 권리를 뽐내며 돌고돌고 피어린 공격적이었다. 조국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준 이 민족사적 위업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것이다.》라고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그 준엄한 시기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강성국가건설의 용대한 설계도를 펼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하여 투쟁하시었다. 무어때문일까? 우리 나라를 강성국가로 만드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니라는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불면불휴, 불철주야의 초강도

강행군을 이으시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나가시었다.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뿐 아니라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보아야 하므로 늘 시간이 모자라 바쁘게 지낸다고, 전에는 수령님께서 조급이라더 더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초가 1시간이 되어주었다 하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자신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

여 일을 더 많이 할수 있게 1초가 1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일하면서 제일 애끼는것도 시간이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것도 시간이 흐르는것이라고 하시며 애국헌신의 머나먼 장정을 걸고걸으신 장군님이시었다.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만만시련을 다 겪으시며 한생을 초불과 같이 장그리 래워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는 마음속에 간직하고계신것은 조국통일념이었다.

그이께서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실현으로 전민족을 이끄시었다.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력사적

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수호의 선군길,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현 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는 마음속에 간직하고계신것은 조국통일념이었다. 그이께서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실현으로 전민족을 이끄시었다.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력사적

인 평양상봉들이 마련되고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 평화변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민족애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하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반목과 질시, 대결과 불신이 두려웠던 조국강토에 민족적 단합과 화해,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거두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은 민족대국상후 비감을 금치 못해하면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국가의 만년기틀을 세우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시어 평화통일의 리정표를 세워주신 장군님의 업적을 조국과 더불어 천년만년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끝없는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진 장군님의 한평생이야말로 민족만대의 부강변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이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숭고한 사랑감으로 실장을 불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의 빛나는 한생이었다. 그의 전선적인 생애와 눈부신 자욱자욱의 후세에 가시도 그 생명력이 더 선명하게 부각될것이며 조선은 무궁토록 그이께서 열어나신 길을 따라 가고갈것이다.

오늘 천추위인인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세월과 더불어 불멸하고있으며 장군님은 민족의 마음속에 영원한 아버지로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김강철

시 영원하리 세월의 끝까지

리철준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해 피눈물 흐르던 12월의 그날은 삼천리 이 땅에 두들기 년륜을 새기며 왔다	아버지장군님 그 한생의 어느 아침 어느 밤인들 한시도 통일을 잊으신 삼천리 이 땅에 있었던가	하늘길 땅길 배길 이 열리고 겨레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며 북과 남에 펼쳐진 통일의 대추전을
그리움이 흐른 2년 우리 겨레가 마음속에 떨어져 못 사는 장군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변함없이 살아온 2년	새해를 맞으시면 그 첫 아침에 남녘의 겨레 생각하시며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 그리도 간곡한 말씀 남기시고 온 한해 통일의 자욱 새겨가신 장군님	진절로 다 전할수 없고 글로는 다 새길수 없는 장군님의 그 헌신 그 업적 겨레를 위해 바치신 한생이어서 그 위대한 생애 겨레는 잊을수 없으라
어이 잊을수 있으랴 한평생을 조국의 통일 위해 하나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그 천만헌신 겨레는 날과 달 가슴에 안고 살았 어라	어이 잊을수 있으랴 한평생을 조국의 통일 위해 하나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그 천만헌신 겨레는 날과 달 가슴에 안고 살았 어라	추억이 아니여라 아버지장군님 통일의 한생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 가시는 통일의 자욱우에 줄기차게 이어지노니
세월을 넘어 지금도 들려온다 통일을 두고 우리 장군님 절절히 하시던 못 잊을 그 말씀	어이 잊을수 있으랴 한평생을 조국의 통일 위해 하나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그 천만헌신 겨레는 날과 달 가슴에 안고 살았 어라	원수님 계시어 장군님은 언제나 겨레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배후신 사랑 쌓으신 업적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삼천리에 햇빛처럼 차남치여라
—아침에 깨어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통일을 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이 잊을수 있으랴 한평생을 조국의 통일 위해 하나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그 천만헌신 겨레는 날과 달 가슴에 안고 살았 어라	아, 원수님 계시기에 장군님은 겨레의 영원한 아버지가이 한생은 세월의 끝까지 영생하라! 길이 빛나리라!
통일을 두고 늘 마음씨오신	어이 잊을수 있으랴 한평생을 조국의 통일 위해 하나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그 천만헌신 겨레는 날과 달 가슴에 안고 살았 어라	잠만 같은 그 6.15가 있어

로를 뚜렷이 밝혀주는 화불이 고 동태였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불변의 진로로 삼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외세의 계속되는 압력과 제재책동에도 굴함없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요 의지이다. 국력은 강한 군력에서 나온다. 총대우에 민족의 안녕이 있고 나라의 평화도 통일강성국가도 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력사의 뜻을 올리시고 위대한 장군님 가리키신 길을 따라 주제의 키를 잡으신 탁월한 계승자를 모시어 가까운 앞날에 조선의 장엄한 승리를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장군님 가리키신 길을 따라

올해 공화국이 역센 기상을 하늘에 닿은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가리키신 선군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왔기때문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봉쇄와 거둬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공화국이 처한 최악의 역경을 두고 당시 일본의 한 잡지는 《북조선은 지금 가족한 운명에 처해있다. 심각한 굶주림과 추위, 동력난을 겪고있는 북조선이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론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다.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매국배족세력이 공화국의 운명에 대해 그 무슨 《시간문제》를 운운하며 패자를 부르려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리고 조국수호의 길에 나서시었다. 잊을수 없는 그 나날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나라의 경제현정이 어렵다는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어떤 피값을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보다 하면 생활을 푸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망국노

가 되겠는가, 자주적인민이 되겠는가 오를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선다고 하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세찬 전선길을 헤쳐가시었다. 예로부터 나라없는 백성의 운명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나라를 지키고 빛내이면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들이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말해주는 진리이다.

총대가 약하면 조국을 잃

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공화국은 무적의 군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미국의 한 방송은 《죽어도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진 정치사상실체가 바로 북조선》이라고 전하였다. 선군은 주체이요 자주이다. 주제사상과 자주정치를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신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그 어떤 어려운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진

그 귀움의 대하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2돐을 맞는 조국강산에 사무치는 그리움의 대하가 넘친다.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을 보아도, 한 줄기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어도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는 12월이다. 어느 한시도 장군님을 잊고 산적이 없는 인민들이기에 행복이 꽃피날수록 그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넘쳐있다. 아, 아버지장군님. 못 견디게 그리습니다. 이런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오늘도 수많은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으로 오르고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에 대한 신뢰심과 흠모심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수는 근

5 000여개 단체에 6만여명, 위대한 장군님께 세계 170여개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각계층 인민들,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이 올린 선물들은 6만 700여점에 달하였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에 대한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심이 세월이 흐를수록 얼마나 뜨겁게 불타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 갈 불타는 결의가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차남치고있다. 인민을 위해 한평생 천만고생 다 겪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 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 이 일떠세울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결의로 총만된 12월이다.

본사기자



쌍 아 올 리 신 업 적 은 영 원 불 멸 하 리 라

겨 레 에 게 남 기 신 고 귀 한 유 산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너무나 뜻밖에 우리결을 떠나신 때로부터 2년이 되었다.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가를 일떠세우고 인민들을 세상에 버려놓지 않고 잘살게 하시고 그처럼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의 모습은 지금도 겨레모두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이 일구어놓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가지까지 전력적으로 활동하시었으며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겨레를 위해, 통일을 위해 걸으신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그려볼 때면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제일 먼저 안겨온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리념은 장군님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가장 귀중한 통일유산이다.

돌이켜보면 6.15공동선언이 태어나기 이전까지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속에서 민족분열의 력사는 어언 반세기이상이나 흘렀다.

그러던것이 2000년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북남공동선언이 태어나면서부터 조선반도에는 자주통일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은 겨레와 세계가 지지찬 동안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 민족끼리가 얼마나 위대한 통일리념인가 하는것은 6.15이후의 격동적인 사변들이 잘 말해준다. 끊어졌던 령토와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고 자주통일의 대

화가 삼천리에 곱이친 격동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가 안아온 자랑스러운 열매들이었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선반도에 민족자주의 새 력사를 펼쳐왔다.

우리 나라의 분렬은 외세가 강요한것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오늘날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은 의종의존과 동족대결책등에만 매달려 통일의 전도를 어렵게 했다.

41년전 북남사이에서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명시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남조선당국은 《미국은 외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선언이 울려나옴으로써 북남관계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맞게 되었다.

자주의 기상이 넘치는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 외세의 간섭을 뛰어넘어 민족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북남대화의 새 기원이 마련되게 되었다.

6.15이후 2007년 6월까지 북남사이에는 21차의 상급회담과 40여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및 각 부문별 분과회의와 실무접촉 그리고 10여차의 군사당국자들 사이의 회담 및 실무접촉을 비롯하여 100여차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고 여기서 말뚝할만 한 수많은 합의들이 도

출되었다. 이 나날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통일도 능히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온 겨레에게 확신시켜준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었다.

우리 민족끼리는 오랜 세월 송미와 공미에 물젼었던 남쪽사공에 자주의 열풍을 불어왔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녘의 민심은 공화국에 쏠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를 따르려는 기운이 고조되었다.

남조선 각지의 대학구내 들에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비롯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안들을 칭송하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으며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집회와 토론회들이 연이어 열렸다.

2002년 나 어린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통일행사들이 벌어진 장소마다 거리의 통일열기가 가득 찼었다.

2005년 6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6.15공동선언 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의 당국대표들도 참가하여 당국과 민군모두가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던 6.15시대의 감동적인 현실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높이 웨치며 분렬이래 처음으로 북남노동자통일대회와 북남농민통일대회도 열리고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북남녀성통일대회 그리고 북남교육자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북과 남의 계층별 단체들의 통일행사들이 연이어 열려 온 삼천리를 통일의 도가리로 뚫게 했다.

그러나 6.15가 세상을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가 펼친 뜨거운 상봉의 무대에서 서로 만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통일행사들이 벌어진 장소마다 거리의 통일열기가 가득 찼었다.

2005년 6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6.15공동선언 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의 당국대표들도 참가하여 당국과 민군모두가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던 6.15시대의 감동적인 현실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높이 웨치며 분렬이래 처음으로 북남노동자통일대회와 북남농민통일대회도 열리고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북남녀성통일대회 그리고 북남교육자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북과 남의 계층별 단체들의 통일행사들이 연이어 열려 온 삼천리를 통일의 도가리로 뚫게 했다.

그러나 6.15가 세상을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가 펼친 뜨거운 상봉의 무대에서 서로 만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통일행사들이 벌어진 장소마다 거리의 통일열기가 가득 찼었다.

2005년 6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6.15공동선언 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의 당국대표들도 참가하여 당국과 민군모두가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던 6.15시대의 감동적인 현실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높이 웨치며 분렬이래 처음으로 북남노동자통일대회와 북남농민통일대회도 열리고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북남녀성통일대회 그리고 북남교육자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북과 남의 계층별 단체들의 통일행사들이 연이어 열려 온 삼천리를 통일의 도가리로 뚫게 했다.

그러나 6.15가 세상을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가 펼친 뜨거운 상봉의 무대에서 서로 만나 기쁨과

기간에 북에서 남쪽을 방문한 인원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전까지의 10년간에 비해 5배, 같은 기간에 남쪽에서 북쪽을 다녀간 인원은 금강산관광객을 빼고 4.5배 늘어났다고 된다.》고 전한것처럼 북남사이에서 인적래왕도 활발히 벌어졌다.

2007년에는 평화와 통일의 기관차가 분렬의 장벽을 뚫고 동해선, 서해선철길을 달렸으며 북남의 도도 이어지고 금강산관광도 실현되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민족공동번영의 동음이 더욱 세차게 울려다졌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화폭이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나부기던 6.15시대에 겨레는 사실상 통일에 살았고 통일의 환희와 기쁨을 누구나 가슴부터이 체험했다.

남조선의 《한겨레》신문이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2004년 5월말까지의

거주시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울으신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첫 조항에 우리 민족끼리를 새겨주시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그것을 자주통일의 역설 기둥으로 새겨주시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길이 빛나게 될것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는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대결책등으로 북남관계가 수년간 다시 진통을 겪고 불신과 대결이 극도에 이른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이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가 얼마나 정당하고 귀중한 통일의 리념이고 기둥인가 하는것을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또 한분의 천출유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산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실 철석의 의지와 애국애족의 통일방향을 지니시고 분렬의 원한이 서려있는 판문점에 대한 력사적인 시찰도 하시었으며 신년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나아가길 고귀한 지침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 선군령도로 제국주의세력과 반통일분자들의 반민족대결방탄을 짓누르며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철학을 힘차게 물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에서 우리 겨레는 백두산형의 장군, 절세의 애국자의 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체험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승해 6.15, 10.4선언에서 천명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있어 삼천리에 통일축포가 터져오를 감격과 환희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6.15공동선언발표 7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장



6.15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는 북과 남의 노동자들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비전향장기수들



어깨걸고 달리는 북과 남의 농민들



금강산관광의 기쁨을 누리는 남조선인민들



통일철도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여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분렬로 우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물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살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산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친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불신과 반목, 대결의 긴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6.15 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된것은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겨레에게 6.15공동선언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북과 남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의 길도 열어주시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장군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자주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흐르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사이에는 계층별 통일대화와 상봉모임, 토론회, 민족통일대축전 등 민족의 대화합찬기가 성대히 치러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경제인,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민족은 피로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임을 가슴뜨겁게 절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뜨거운 동포로써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을 친히 만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던 주제97(200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위력을 지닌 주제의 사외주의국가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장이라는 데 대하여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대장을 더욱 빛내주시어 우리 민족은 보다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높

이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확실성있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애국애족의 대우단과 통일외교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자주의 선언을 펴쳐주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쌍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각계층은 민족의 대국상기간 조분과 조전들에서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선언들을 채택발표하신것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 장거라고 하면서 력사적인 데 대하여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대장을 더욱 빛내주시어 우리 민족은 보다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높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민족번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에 국위엄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리일으키고계신다.

우리 겨레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통일에국의 뜻과 유산을 받드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중단되지 않은 범민족대회

주제83(1994)년 8월 제5차 범민족대회이행부와 관련한 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번엔 진행하는 8.15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범민족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생전의 뜻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의 사상을 받들어 특색있게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철석의 통일의지가 마디마디에 력력히 어려있는 그이의 말씀에 따라 범민족 범민족부에서는 제5차 범민족대회준비를 적극 다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8월 13일 평양에서는 겨레의 통일의지를 과시하며 모여온 1만 5 000여명의 대회참가자들과 평양인민들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것을 다짐하는 통일철결의집회를 진행하는것으로써 제5차 범민족대회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피눈물속에서도 중단없이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으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7천만겨레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온 강토에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준 력사적기대로 되었다.

몸소 보내신 친필편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평양을 방문한 한 재미동포녀류기자는 위대한 장군님께 직접요청을 드리었다.

그때 장군님께서 여러가지 증대사들이 많이 제기되어 평양을 방문한 그를 만나주시 시간적여유를 내지 못하시었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평양을 방문한 그는 다시 직접요청을 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분명한 속에서 그에 보내는 편지를 쓰시었다.

이 편지에서는 편지에서 짚을 필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는것과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녀사와 같은 저명한 뉴류문필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하시던 말씀을 잊지 않고있으며 녀사가 조국과 민족, 통일을 위하여 활약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시었다.

이어 장군님께서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녀사가 조국을 다시 방문하는 기회에 꼭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난 그는 자기가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통일열망을 실현하시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받들어 민족자주위업 완수하자

인민은 원수님만 믿는다

위대한 아버지와 영결을 애라게 부정하며 온 나라 인민이 피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두 해가 흘렀다.

조국의 력사에서 2년이란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다. 하지만 이 짧은 나날들에 공화국은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과 세계를 향하여 비약해 나가는 눈부신 속도, 그로 하여 이 땅에 밝아올 밝고 창창한 레일이 어떤것인가를 만사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다면 공화국의 인민들은 무엇으로 하여 세상에 보란 듯이 새 열정, 새 목표로 충만한 가슴을 쭉 펴고 그리도 밝게 웃고 용감히 전진하게 되었는가.

12월의 눈보라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목매어 부르며 조의식장을 찾은 인민들에게로 일군들을 떠밀어주시며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인민의 편지와 리악을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간곡히 이리시던 그이이시었다.

재간동이 꼬마들이 울린 편지도 보아주시며 축복의 친필로 정다운 속삭임도 나눠주시고 창천거리의 신혼 부부를 만나주시여서는 아기가 생기면 창천거리를 지나가다가 꼭 들리시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설레는 새 소식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래여진 회한한 전설로 시대를 감동하며 묻지 않고 웨치지 않아도 스스로 퍼져간다. 호르는 시간과 더불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열화같은 매혹으로부터 온 나라 인민과 군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스스로 운명을 위탁하게 되었고 조국의 미래를 그이께 통째로 맡기었다.

오랜 기간의 체협속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정도자와 인민의 혈연의 뉴대가 단번에 가장 깊고 튼튼하게 어지는 인류정치사에 있어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있는 것이다.

고는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정성이면 돌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한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안될 일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들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인민의 아들딸답게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워기어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이 잘살고 모든것이 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워야 한다.

그이의 이 불같이 열렬하고 뜨거운 진정과 무한한 인민사랑은 온 나라 인민을 그이와 생사를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로 되게 하였고 그이를 떠나신 순간도 못사는 인민으로 되게 하였다.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며 행복을 꽃피워주시실 수 있으며 그이만을 따라야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강대해지고 무궁토록 번영할수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공화국의 강성변영과 민족자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력사적 이정표로 된다. 온 나라 인민과 군대는 주제위

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한중도 못되는 반혁명종파분자들의 분파책동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단호히 숙청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성공의 통장훈도 부르는 담대한 기상, 적들이 우리의 령도에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즉시적인 심벌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려는 최고사령관 평명으로 원두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시는 드세찬 배짱, 눈감박할 사이에 세계적수준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시며 공화국을 문명강국으로 힘차게 이끌어가시는 비범한 령도력을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온 나라 인민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길 불세출의 위인, 인민이 사랑하는 원수령도자이다.

이 세상 모든것이 변한다 해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를 더 굳게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선군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며 이 땅위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것이다.

아버지장군님 서거 2돐을 맞으며 지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울 천만군민의 열의가 더 높게 불꽃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민족자주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를 거세하려들면서 분파책동으로 도전해나신 장성택반당혁명종파분자들의 죄행이 낱말이 폭로되고 그들을 깨끗이 숙청하는 혁명적 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의 조치는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속하며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유일적 령도하에 있는 사회주의국가이며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다. 수령에 의해 개척되고 수령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민족자주위업수행에서 령도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령도의 유일적 중심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그 전도와 승리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1956년 8월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당에 도

전해나섰던 온갖 불순세력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처리해왔으며 그때마다 수령, 당, 대중이 뭉친 공화국의 사회는 더욱 순결해지고 천백배로 강화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로동당안에 우연히 끼여들어 당과 혁명에 도전해나신 불순분자, 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적발속청됨으로써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의 유일적중심으로 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순결체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한중도 못되는 종파분자들이 아무리 쏠라다거린다고

치고 이제는 나쁜놈들도 없어져서 인민들이 더 잘살수 있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기쁨에 겨워 말하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애국의 한 마음으로 더 잘 모시고 받들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고있다.

그 순결하고 불타는 마음들을 담아 모든 가정과 일터, 거리와 초소마다에서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는 신념의 노래, 맹세의 노래가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

가장 정당한 조치

해도 공화국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며 약화될수 없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신념과 의리로 령도자를 중심으로 받들어나가기때문이다. 지금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해졌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계속하고 완결할 단호한 의지로, 천출위인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나아가고있다.

이번에 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적발속청된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남녘로 누구나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번의 조치가 천만번 잘된 조

에 철통같이 뭉쳐 내외원수들의 온갖 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서버리며 민족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그 애국의 열의는 하늘 땅에 가득차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혁명을 가꾸어가는 공화국 내부의 불순세력에 무자비한 정벌을 안겼듯이 자기의 최고존엄과 체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 령도에 대해 감히 시비질하거나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외부의 적대세력의 책동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게 될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허성철

이 기적의 근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피줄처럼 정을 맺은 천만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었다. 끝을해야 끝을수 없는 이 혈연의 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에 대한 애혹과 흥미의 분출이었다.

그이는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피눈물의 언덕에 쓰러졌던 이 나라 인민을 일으켜 세우시고 기적과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었다.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엔 경애하는 원수님이 어떤분이신가를 전할수 있는 못 잇을 추억들이 너무나 많다.

룡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센터, 류경구강병원, 옥류야동병원, 미림승마구락부, 동물물놀이장을 비롯하여 도처에 수놓처럼 일떠선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원지, 공원, 문화시설들 그 어디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흥미의 목소리가 절절히 울려나온다. 어른도 아이도 일군도 로동자도 떠나없이 가슴을 열고 속마음으로 리놓는 그에 대한 친근감과 그리움, 이제 조국의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우리의 앞날이 대단하리라는 기대와 확신, 그것은 때로는 귀속말로, 때로는 가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원히 민족의 한울님으로 모시고 받들려는 우리 천도교인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우리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천도교인들은 어제도 그러했듯이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하느님처럼 굳게 믿고 따르겠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지금 공화국은 민족자주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놓여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과 똑같은 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민족자주위업이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자면 령도자를 잘 모셔야 하며 모두가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은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되는것도 아니며 또 바라다고 하여 아무나 될수 있는것도 아니다.

오직 민족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뛰어난 자질과 품모를 지닌 탁월한 령도자만이 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김일성민족의 새 100년대를 이끌어나가실 모든 자질과

품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결출한 위인이다.

지니신 사상이 위대하고 체현하신 예지가 천재적이신 철세의 대정치가, 자주적 신념이 강하고 백두산악같은 배짱과 당력을 지니신 전설적인 위인!

오랜 세월 강대국들의 틈에 끼워 수난당해온 약소민족의 지정학적속명론을 단호히 부정해버리고 조선의 중심으로 세계를 교활하

태양의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극진히 보살피시는 인덕의 최고체현자, 자애로운 아버지의 고결한 품모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것인가.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맞고보낸 잊을수 없는 낮과 밤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의 한없는 세계를 이 나라 인민들만이 아닌 세계가 격정속에 보아

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민족이 세세년년 바라던 모든 꿈과 리몽모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것인가.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맞고보낸 잊을수 없는 낮과 밤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의 한없는 세계를 이 나라 인민들만이 아닌 세계가 격정속에 보아

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그 령도만 받들어가리/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라는 신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그이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고있는 것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에 감히 분파책동으로 도전해나섰던 장성택일당이 적발속청된데 대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저마다 한목소리로 종파분자들을 분노에 차 규탄해나서면서 그이의 애국의 령도를 끝까지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들을 피력하고있다.

지금 강성국가의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처럼 나아가는 이 조선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적지위는 절대적이며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흥범식

얼마전에 접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우리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세찬 충격을 주고있다.

갑히 한중도 못되는 간신들이 하늘의 해를 가리워보겠다고 책동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던 말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곧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민족의 한울님이다.

사상과 령도적자질에서나, 품모에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친분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조국의 승리이고 민족의 생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하느님처럼 믿고 따르는 길에 조국의 부강변영과 겨레의 행복이 있다. 이것은 온 겨레가 심장으로 체득한 철리이다.

이번에 채택된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원히 민족의 한울님으로 모시고 받들려는 우리 천도교인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우리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천도교인들은 어제도 그러했듯이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하느님처럼 굳게 믿고 따르겠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민족자주위업이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자면 령도자를 잘 모셔야 하며 모두가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은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되는것도 아니며 또 바라다고 하여 아무나 될수 있는것도 아니다.

오직 민족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뛰어난 자질과 품모를 지닌 탁월한 령도자만이 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김일성민족의 새 100년대를 이끌어나가실 모든 자질과

품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결출한 위인이다.

지니신 사상이 위대하고 체현하신 예지가 천재적이신 철세의 대정치가, 자주적 신념이 강하고 백두산악같은 배짱과 당력을 지니신 전설적인 위인!

오랜 세월 강대국들의 틈에 끼워 수난당해온 약소민족의 지정학적속명론을 단호히 부정해버리고 조선의 중심으로 세계를 교활하

태양의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극진히 보살피시는 인덕의 최고체현자, 자애로운 아버지의 고결한 품모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것인가.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맞고보낸 잊을수 없는 낮과 밤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의 한없는 세계를 이 나라 인민들만이 아닌 세계가 격정속에 보아

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민족이 세세년년 바라던 모든 꿈과 리몽모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것인가.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맞고보낸 잊을수 없는 낮과 밤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의 한없는 세계를 이 나라 인민들만이 아닌 세계가 격정속에 보아

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그 령도만 받들어가리/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라는 신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그이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고있는 것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에 감히 분파책동으로 도전해나섰던 장성택일당이 적발속청된데 대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저마다 한목소리로 종파분자들을 분노에 차 규탄해나서면서 그이의 애국의 령도를 끝까지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들을 피력하고있다.

지금 강성국가의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처럼 나아가는 이 조선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적지위는 절대적이며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흥범식

오직 그이만을 따르리라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지도 어언 두해가 흘렀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며 우리들을 것처럼 내세워주시던 아버지장군님이시었다.

오늘을 맞고보니 청년들을 금방적에 앞쳐주시고 하시던 장군님생각에 더욱더 눈시울이 젖어든다.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지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정을 다해 모셔갈 불타는 결의로 충만되어있다.

그런데 며칠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고 치솟는 격분에 온몸을 떨었다.

저 하늘의 태양과도 같은 신 우리의 원수님께 감히 도전해나신 장성택파위와 같은 현대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당장에라도 달려나가 짓몽개버리고싶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하느님처럼 믿고 따르고있다.

그이를 따르는 길에 행복한 삶과 미래도 조국통일의 그날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실생활체함을 통하여 철리로 새겨안았다.

우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안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모든 청년들을 튼튼히 묶어세워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를 천경만경 더욱 굳게 쌓아나갈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지도동맹리 명록

민족자주위업이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자면 령도자를 잘 모셔야 하며 모두가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은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되는것도 아니며 또 바라다고 하여 아무나 될수 있는것도 아니다.

오직 민족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뛰어난 자질과 품모를 지닌 탁월한 령도자만이 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김일성민족의 새 100년대를 이끌어나가실 모든 자질과

품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결출한 위인이다.

지니신 사상이 위대하고 체현하신 예지가 천재적이신 철세의 대정치가, 자주적 신념이 강하고 백두산악같은 배짱과 당력을 지니신 전설적인 위인!

오랜 세월 강대국들의 틈에 끼워 수난당해온 약소민족의 지정학적속명론을 단호히 부정해버리고 조선의 중심으로 세계를 교활하

태양의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극진히 보살피시는 인덕의 최고체현자, 자애로운 아버지의 고결한 품모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것인가.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맞고보낸 잊을수 없는 낮과 밤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의 한없는 세계를 이 나라 인민들만이 아닌 세계가 격정속에 보아

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민족이 세세년년 바라던 모든 꿈과 리몽모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것인가.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맞고보낸 잊을수 없는 낮과 밤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의 한없는 세계를 이 나라 인민들만이 아닌 세계가 격정속에 보아

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그 령도만 받들어가리/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라는 신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그이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고있는 것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에 감히 분파책동으로 도전해나섰던 장성택일당이 적발속청된데 대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저마다 한목소리로 종파분자들을 분노에 차 규탄해나서면서 그이의 애국의 령도를 끝까지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들을 피력하고있다.

지금 강성국가의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처럼 나아가는 이 조선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적지위는 절대적이며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흥범식



봄은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3)

해외동포들에게는 자신과 선친들이 두고온 고향과 조국이 있다. 중국에서 사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재중조선 동포들도 마찬가지이다. 봄은 이역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의 뿌리가 내려진 고향산천과 조국을 잊지 않고 그리운 가족, 친척들이 있는 압록강너머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재중조선민들과 동포들이다.

조국과 이들 재중동포들을 뜻과 숨결로 이어주고 넓은 중국동북지역에 흩어져 사는 동포사회를 하나로 단합시켜주는 해외동포조직이 바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이다.

우리가 심양에 머무르던 날에도 이곳의 총련합회 본부로는 각지에서 사는 동포들이 마치 친정집에 나들이 오듯 그칠새없이 찾아오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들을 따듯이 만나주고 힘을 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라도 더 풀어주기 위해 애쓰곤 하던 총련합회의 일군들.

총련합회에서는 재중조선인들과 동포들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교배한 령도품모와 업적을 깊이 인식시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

조국과 동포들을 이어주는 강한 재중총련이 있어...

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었다.

해마다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연길시와 길림시에서 성대한 경축행사를 진행해오고있는것은 그 일환이다. 지난 2월과 4월에 연길시 노동자문화궁전과 길림옥문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축행사에는 총련합회일군들과 재중동포들, 심양에 있는 조선총련사관성원들, 중국의 벗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보고대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회고음악회, 영화감상회, 지방장경협회, 조대연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태양절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베이징시, 심양시, 단둥시, 연길시, 훈춘시, 왕청현, 화룡시, 목단강시, 계서시, 해빈시, 가곡사시, 할빈시 등 지방들에서 실정에 맞게 경축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여 이역방 곳곳에서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분위가 차넘치게 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재중동포들의 한없는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올해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15차 김일성화축전에 정성껏 키운 10상의 김일성화물, 제17차 김정일화축전에 또 10상의 김정일화물 그리고 전승 60돐에 기념의 꽃전시회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각각 10상씩 보내 전시함으로써 전시회를 더욱 빛내이고 조국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연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예술탈단 성원들은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인해 조선반도정세가 전경정경으로 치달는 일촉즉발의 정세속에서도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하여 단독공연과 조별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조국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축전에서 단체금상을 비롯한 여러개의 금상, 은상을 수여받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합회와 각 지구협회, 지방들에서는 재중조선공민

들과 동포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해외에서 살면서 제일 기다려지는것은 조국에 대한 소식이라고 한다. 조국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동포들에게 총련합회에서는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 소식, 전승철행사소식 등 다양한 소식자료와 학습제강들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로동신문》, 《통일신보》, 《조선》화보, 《통일화보》, 잡지 《금수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출판물들을 산하 지방들을 통해 각지의 조선공민들과 동포들에게 제때에 가닿게 하는것도 총련합회의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고있다.

우리는 현지에서 《통일신보》에 대한 독자들의 반영들도 들을수 있었다.

《(통일신보)가 우리 동포들속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의 심리와 정서에 맞게 글과 사

자들이 편집되고 다양한 조국소식들도 특색있게 알려주니 보는 사람마다 다들 좋아합니다.》(한길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장)

《나는 조국에서 출판물들이 오면 《통일신보》부터 먼저 찾아보곤 합니다. 《통일신보》를 더 많이 보내주시시오.》(심양시에서 사는 김춘희동포녀성)

총련합회에서는 공화국의 해외동포친화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증밑에 여러 조국방문단과 축하단들을 조국에 파견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귀환보고도 조직함으로써 공민들과 동포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공화국의 경이적인 발전모습들을 실지 체험으로 느끼도록 하고있다.

지난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아 재중조선공민, 가족친척면회방문단 단장으로 평양을 다녀간 림명순부회장은 우리에게 평양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매년 올 때마다 회한한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인민들의 기쁨과 웃음이 커가는것을 보니 과

시 우리 원수님의 정치가 다르고 제일이라는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였다.

조국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한 행사들이 진행되곤 할때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외에서 달려온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언제나 주석단에 내세워주시고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고는네 대해서도 재중동포들은 커다란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의 경축행사장에 참가한 우리 의장을 광장주석단에 높이 내세워주시고 행사가 끝날 때에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두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고무격려의 뜨거운 말씀도 주시는 장면을 기록영화로 비추면서 눈물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재중총련과 동포들에 대한 이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격정에 겨워 말하던 총련합회 중앙지구협회 부회장이, 멀리 이역에서 사는 재중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총련합회와 재중동포들은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사업에도 특색있는 기여를 많이 하고있다.

조국에서 김일성김정일기념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총련합회의 일군들과 각지의 동포들은 저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게 갖 마음과 애정을 안고 많은 자금을 기부금으로 바치었다. 사사려행으로 조국방문중이던 김대산재중조선공민도 김일성김정일기념사업에 많은 자금을 기부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화국의 은행에 직접 찾아가 돈을 내놓으면서 해외동포의 마음속에 간직된 진정어린 애국심을 표시하였다.

심양시에서 살고있는 87살에 이른 김봉수박사는 남은 여생을 조국의 의학발전에 기여하고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간직하던 의학방들과 의학참고자료들을 조국에 보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사업도 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조국이 강해야 우리 총련합회도 강해지고 재중조선인들의 마음도 든든해진

다.》며 조국을 위한,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을 앞으로 더 잘해나갈 열의를 피력하던 총련합회의 조국제 사무국장.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높은 민족적 긍지를 안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보조를 같이해나갔다고 연회에서 열변을 토하던 황영두로 남지구협회 회장.

오늘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자기 발전력사에서 최전성기를 누리고있다. 중국의 각성과 도시, 지역들에 산하의 지구협회, 시지부 등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있고 모든 공민들과 동포들이 최은복의장의 사업을 진심으로 받들면서 단합되고 활력있는 동포조직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해외에서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를 넘쳐있고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강한 재중총련, 애국적인 공민들과 동포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더욱 강하고 강성국가 그날도 머지않았음을 우리는 재중동포사회현지에서 가슴부듯이 느끼었다.

본사기자



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청사
②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③ 모범적인 시지부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상장과 메달 등을 수여하는 총련합회 일군들

《우리 의장》이라는 친근한 부름과 함께

취재의 나날 동포들속에서 즐겨들은 말이 하나가 《우리 의장》이라는 말이다. 총련합회의 일군들은 물론이고 만나는 동포들마다 《우리 의장》하며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 자랑스레 이야기하곤 하였다.

동포들이 사랑하고 따르는 최은복의장. 그는 조국인민들속에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해외동포일군이다. 그는 조국에서 주요행사가 진행될 때면 재중조선인총련

합회, 재중동포들을 대표하여 언제나 주석단에 서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여러차례의 집견과 믿음의 말씀도 받아안은 쉽지 않은 영광도 지니었다.

그는 총련합회적으로 제일 바쁜 사람이었다. 아침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업도 포치하고 동포사업정형도 해하며 밤늦도록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등 좀처럼 여유로운 그를 보기 힘들었다.

무슨 힘이 로닌기의 그를 젊음에도 따르지 못할 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조국과 재중총련을 위한 애국사업에 발벗고 뛰도록 떠밀어주고있는가.

《지금도 그날의 영광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며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여주시 때 격정적 목이 메어 미처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 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해외에서도 조국의 딸답게 조국을 위해, 우리 동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조국에로 심장이 뛰고 열정과 능력이 있으며 자군센 의지를 지닌 동포들의 사랑받는 의장.

언변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는 그를 오늘날 동포들은 《우리 의장》이라 부르며 통일애국사업을 신나게 함께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이 센터에서는 동포들이 이역에서 살아도 조국을 알고 조선민족의 넋과 긍지를 안고 살도록 하기 위해 조선민족의 노래와 춤을 배워주고있다. 상해 복단대학과 청도 해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이 센터에서 배운 무용을 대학입학시험대에 올려 대학에서 그 명성을 크게 떨친것은 이 센터의 교육수준을 잘 말해주고있다.

민족에 슬보급에 힘 쓴다

중국의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예술경연에 참가하여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받아 주최측의 호평을 받았다. 상해 복단대학과 청도 해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센터에서 배운 무용을 대학입학시험대에 올려 대학에서 그 명성을 크게 떨친것은 이 센터의 교육수준을 잘 말해주고있다.

심양모란예술센터 분교인 장춘예술센터도 예술교육과 함께 장춘조선족군중예술관의 예술사업을 도와줌으로써 장춘조선족군중예술관이 중국의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경연과 공연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하였다.

장춘예술센터는 올해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

하여 조선을 방문하는 중국정부대표단에 망라된 중국의 이름있는 배우 송조영과 여러 중국배우들의 노래연습을 잘 방조해주어 그들이 뜻깊은 전승절경축행사무대에서 조선노래를 훌륭히 형상할수 있게 하였으며 재중동포예술인들에 대한 예술방조사업도 잘하여 해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인칭송

의 회고음악회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하였다.

심양모란예술센터의 김연주교장은 《날로 개화발전하는 조국의 민족예술을 따라배우려는 동포들의 열의가 높아지고있다. 앞으로도 센터를 잘 운영해서 찾아오는 동포들에게 민족예술을 하나라도 더 많이 배워주어 조국에, 민족의 넋을 안겨주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지부를 화목하고 단결된 애국조직으로

지난 시기 우리 지부에서는 동포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언제나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조직의 귀중함을 환상간도 잊지 않고 사랑하여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우리 지부에서는 조직을 강화하고 주재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우리 동포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해결해주고있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부흥과 통일애국사업을 위하여 총련합회와 연변지구협회 두리에 굳게 뭉쳐 혼춘시지부를 화목하고 단결되고 민족정서가 차넘치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애국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다.

윤정숙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훈춘시지부 지부장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연방 연해변강고려인통일련합회(연해변강고려연)의 회고모임이 11일 나호드카주재 우리나라 총명사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아버지장군님과 피눈물속에 영결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비통한 모습을 반영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품 그리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위대성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백두산에 함께 계시는 림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드리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영화 《조선의 피눈물》을 감상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렬재로 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 세계 진보적인류가 결출한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고 말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절세의 애국자를 한시도 잊지 않고 계혁명에 앞장서서 애국적 열의와 애국적 열의를 보여주시는 아버지가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인민들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진행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사상과 령도, 품모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모든 리상이 빛나게 실현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비록 몸은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게서 계시는 사회주의조국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조국의 번영, 통일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날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중동포들은 나라의 특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격정을 터뜨렸다.

중국 훈춘 김일성화 김정일화은실 총경리 양봉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받으신 많은 훈장과 메달들만 보아도 그의 위대성을 잘 알수 있다.

그이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이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있다.

중국단동성민무역유한공사 직인 국창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야전복을 벗지 않으시고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많이도 걸으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었다.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생각하면 가슴뜨거워질수 없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넋원인 강성국가건설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갔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최룡호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날이 갈수록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지고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신 뜻을 받들어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다그쳐나갔었다.

본사기자

재중동포들의 반향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겠다.

중국 단동성민무역유한공사 리사장 리영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족의 고결한 총정에 세인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장군님을 그리는 우리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을 담아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걱정속에 불렀다.

본사기자

1년 전 바로 그 날에

남조선에서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여야간의 아귀다툼이 지금 이 시각도 벌어지고 있다.

민생은 뒤전에 밀려난채 1년간 여당과 야당이 퍼터지 버리는 싸움의 주요론점은 지난 《대선》이 정당하게 진행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여당은 지난 《대선》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반면 야당은 불법무효로 진행된 부정선거로서 그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처벌을 주장하고있는것이다.

하다면 과연 어느 세력의 주장이 옳은가 하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12월 19일에 있는 《대선》은 여야의 치열한 공방속에 진행되었다. 하나의 지지표라도 끌어모으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다 못해 지어는 인신모욕까지 하는 흑색선전이 방송수단과 인터넷상에서 란무하고 실현불가능한 《공약》들이 홍수처럼 범람한속에 진행된 18대 《대선》은 승자가 누가 될지 마지막표전까지도 전혀 예측할수 없었다. 종당에 현 집권자가 이긴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득표율 차이는 겨우 3.6%이다. 이처럼 여야보사이 득표율간격이 좁은것은 1963년에 이은 5대 《대선》 때 여야보사이 득표율의 1.5%차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그 3.6%의 차이에 이르러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데 있다.

그 요인중의 하나가 경찰의 불법선거운동의혹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보원 녀직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경찰은 조작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하여 의하면 당시 여당후보를 찍었던 유권자중 8.3%가 야당후보를 찍었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기관은 《(문제인후보에게 투표했을지)》이라고 응답한 8.3%를 두 후보의 최종득표율에 반영할 경우 여당후보는 47.2%, 야당후보는 52.3%로 나타났다.》며 《경우에 따라선 《대선》 결과가 달라질수 있

어 상당한 정치적파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사실대로 밝혔을 경우 지금의 《대통령》은 현 집권자가 아니라 야당후보였을수도 있다는 소리이다.

요인이 또 있다. 권력기관들의 불법대선개입문제이다.

정보원 녀직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은 결코 한두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보원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감행한 범죄라는것이 오늘에 와서 날날이 드러났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개입을 불문으로 하고있는 군부씨이버사령부, 보훈처, 통일부 등 권력기관들이 인터넷은 물론 각종 선전을 통하여 야당후보를 비난하고 여당후보를 지원하는 불법대

선활동을 벌였다는것이 사실자료들로 확증되고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도 한 조사기관이 중도총세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과 《정부》기관들의 선전을 믿고 야당후보에게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역시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불법개입이 없었다면 18대 《대선》의 결과도 뒤바뀌어졌을것이라는것이 여론조사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벌어진 지난 《대통령》선거가 사상유례없는 부정협잡선거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인들의 표현대로 《유신》독재자가 총칼로 권력을 나누어줬다면 《유신》독재후학을 노리는 현 집권세력은 조직

적이며 대규모적인 선거협잡행위로 권력을 가로챈 《신구쿠데타》 세력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자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진상조사와 주모자처벌을 요구하는 야당과 각계의 주장을 《대선불복》으로 몰고 지어 《중복》으로 매도하며 란말해나서고있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철면피한자들이거나 여실히 고발하고있다. 나아가서 남조선사회야말로 불의가 《정의》로 행세하고 파쇼가 민주를 압살하는 거꾸로 된 세상, 파쇼암흑사회이고 정치후진지역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개인적일탈》이라니...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보겠다고 이르러러한 오그라수를 쓰고있다.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철저한 해명과 그 주모자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의 웅대한 주장을 두고 대선불복이니, 《중복》과파행위니 뭐니 하더니 그 사건의 진상이 명백해지는 지금에 와서는 그 무슨 《개인적일탈》행위로 굽뎠어 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보기도 하자. 보수집권세력들이 불법대선개입과 관련하여 《개인적일탈》이라는 말을 처음 등장시킨것은 남조선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부터이다.

남조선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0월 1차조사결과발표에서 《관련자들은 소환조사에서 개인블로그와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글작업이 발각된 씨이버사령부소속 요원 4명이 정치적 글을 올린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것일뿐이다.》

고 변명하였다. 즉 남조선군의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은 없고 개별적인 요원들의 문제라는것이다.

정보원도 마찬가지이다. 정보원은 대선개입의혹이 제기되자 《정상적인 《대복》 심리전활동》이라고 아닌보살하다가 검찰의 공소장변경 등을 통해 수만건의 대글이 발견되는 등 조직적 개입의혹이 밝혀지자 《개인적일탈》로 사건을 덮어버리고 하였다.

정보원 원장 남재준이 지난 11월 4일 남조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만건의 인터넷글을 통해 여론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시점에서 정보원심리전단의 대선개입 대글활동을 《개인적일탈》이라고 포장 우겨댄것은 이에 대한 하나의 실례이다. 청와대 역시 다를바 없다. 지금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저들의

계획적인 음모와 암력에 의한것이라는것이 사실로 드러나 결국 제가 놓은 덫에 제가 걸려들어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처음에 청와대는 채동욱과 관련된 흔의자식사건의혹에 저들이 개입되어있다는 여론이 일자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하며 시치미를 떼다가 정작 진상이 파헤쳐 밝혀지자 《경위를 과다충출했다.》고 일버무리였다. 그러다가 보수집권세력들에게 불리하게 번져지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적일탈》이란 말까지 써가며 모지름을 쓰지만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불법무효로 《정권》을 강탈한 부당한 행위는 절대로 감출수도, 용서받을수도 없다.

차은정

한해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여야사이의 주요쟁점거리로 제기되어오던 정보원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해도 저물어가는 이말에 들어와 《국회》에서 시작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원래 정보원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에 있는 《대통령》선거에 정보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터지자마자 야당을 비롯한 정치계와 각계에 의해 《특검》과 함께 제기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과 정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개별적인 현상》이니, 《안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니 뭐니 하며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던것이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이 한두사람이 개입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감행한 특대형의 불법부정행위들로 명백해지고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정보원을 개혁이 아니라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각계에 거쳐서 제재제 울려나오자 당황한 보수집권

최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화제거리로 되고있는 한 이야기가 있다.

옛적 어느 한 나라에서 있는 일이다. 그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임금은 19년동안이나 망명하고 방랑생활을 하였다. 권력과 재부를 노려 많은 신하들이 임금을 떠났건만 오직 한 신하만이 그를 따라다니며 보필하였다.

그 신하는 임금이 굶주릴 때에는 제 살까지 배출정도로 극진히 돌봐 주었고 그가 생이 고달과 주저앉아 삶을 포기할 때에는 따듯한 충고와 바른소리로서 목숨을 있게 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다시 찾도록 해주었다.

한데 임금은 권력을 잡은 다음 많은 사람들을 동용하면서 오로지 그 신하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신하는 산에 들어가 숨어 버리고 그때야 충신을 제버린 임금이 사람들을 시켜 산속을 찾아 헤매었으나 나라

세력이 실날에 나무 하러 간다는 식으로 마치 못해 옹혜나선것이 바로 정보원개혁에 대한 논의문제이다. 그것도 야당과 민심이 강력히 요구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특검》은 끝까지 거부한채로 말이다.

이렇게 마련된 정보원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행태를 두고보아도 그렇다.

지난 3일 여야대표와 원내대표는 4차회담을 열고 정보원개혁특위구성과 거기에

나지 않아 마지막수단으로 그 산에 불을 질렀다. 스스로 걸어나오게 하자고 한 소리가 없건만 신하는 끝내 나오지 않고 나무 한그루를 부둥켜안고 불에 타죽었다. 그 것이 너무 가슴아파 임금은 매해 신하가 죽는 날만은 불을 때지 말고 찬밥으로 끼니를 에우라고 하였다. 옛이야기이다.

정치가가 자기를 도와주

떠오르는 옛 이야기

고 잘되기를 바라는 신하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이었던 김중일이 《새누리당》에 대한 탈당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이것을 특종뉴스로 보도하면서 아마도 그가 가까운 기일안에 탈당할것이라고 예견

하고있다. 그로 말하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민심의 저주와 규란을 받는 《반역정당》, 《부정부패당》으로 막다른 위기에 몰려있을 때 서민들을 위한다는 그 무슨 《경제민주화》공약을 내놓은 사람이다. 이 공약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통해 《국회》다수당으로, 《대선》을 거치면서

제정권을 할수 있게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속에서 그를 가리켜 《현 《정권》의 1등공신》이라고 평가하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경제민주화》공약을 국소수 재벌들을 위한 《경제활성화》로 바꾸어 실행시켰으며 수많은 심복들을 권력의 자리에 동용하면서

김중일은 생쌍고 남은돌처럼 내버렸다.

그래도 옛날 임금은 제 잘못을 뉘우치고 신하를 찾겠다고 산불도 놓고 그가 죽은 후에는 명복을 빌어 찬밥을 먹었다고 하지만 현 집권자는 《1등공신》이 나가는것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없이 쓴외보듯 하고있다.

이것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도, 도덕도 다 제버린 현 집권자의 비인간적, 비도

덕적인 독선과 오만으로 인하여 빚어진 남조선정치사의 비극이다.

오죽했으면 김중일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할애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 는 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게 좋겠다.》라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며겨가는 김중일을 바라보며 남조선인민의 옛 이야기를 떠올리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본사기자 리광성

불법, 부정을 끝장낼것을 주장

9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선언문을 발표하여 불법과 부정을 끝장낼것을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권력기관의 당사자들은 엄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최근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현 《정권》의 《중복》물어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은 《정부》의 언

론기관으로 전락되었다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언문은 《정권》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각종 차별을 없애며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강화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남조선종교인들

빈말로 끝날 정보원개혁론의

단하고 국정원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된 개혁안》이라고 국구 내세우고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은 《여야사이의 합의문에 위요리만큼도 닿지 않는 개혁안》,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안》, 《논 가리고 아옹사한것이다.》, 《시간벌기 위한 한갓 눈속임수》라고 비난하며 《정보원개혁은 정이 집권단체가 아니라 민심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불법개입의 근원이 됐던 복심리전단을 정보원이 더욱 강화하고 대글도 확대하겠다는것 하나만 보아도 그렇다. 이것은 정보원이 《안보》와 《중복》의 미명하에 앞으로 계속 각종 《선거》에 로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것을 그대로 시사한것이다. 정보원이 독이거러니 이발을 그대로 드러낸 이러한 《자책개혁안》이 집권안보와 재집권야망을 추구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것은 두

로부터 파쇼독재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보원대그것을 국구 두둔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원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갓 탁상공론으로 될 것이라는것이 여론들의 평가이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정보원이 존재하는 한 제2, 3의 불법대선사건은 계속 제기될것이며 그것을 막지만 한사바며 정보원을 해체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서명수

실패한 개혁론의 교과 《치적》?

남조선보수당국이 연말이 다가오며 따라 《치적》자랑에 여념이 없어 각계의 조소를 받고있다.

얼마전 청와대는 현 당국자가 취임하여 첫 한해동안 세계 각국과의 《정상회담》과 《다자외교》를 통해 《(한) 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를 이끌어냈다.》느니, 《상당부분의 성과를 거두었다.》느니,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 리해와 지지를 얻어냈다.》느니 하며 요란스레 떠들어

다.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자기 《자랑》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불법과 민심기만으로 《정권》을 가로챈 현 당국자는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균형외교》요, 《신뢰외교》요 하면서 해외나들이에 분주하게 개선의 기회를 망쳐버린 그는 해외무대에서도 동족을 적대시하고 압살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니, 《혁신》니 하는 자극적인 대결방안들을 계속 늘어놓았는가 하면 반공화국제체를 위한 《협력》과 지지》를 구걸하는 추태도 부러웠다.

그로해서 초래된것은 북남사이의 더 깊은 불신이며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의 격화이다.

사대외교, 구결외교는 남조선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마들리게 만들었다. 최근 《방공식별구역》설정문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추진문제 등 민감한 현안문제들을 둘러싸고 주변 나라들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짊에 끼인 남조선보수당국이 사면조가의 처지에 빠져든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미국에 빌붙어 별의별 굴종주태를 다 부리었지만 종당에 미국상전으로부터 받고있는것은 《미색일방위체계》와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가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로골적인 압력뿐이다.

《방공식별구역》재설정과 관련하여 주변 나라들로부터 《도리가 아니다.》, 《새로

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추궁받고 있고 일본한테서는 《어리석은 국가》, 《바보》,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라는 멸시까지 받고있는 남조선보수당국이다.

결국 현 남조선당국자는 미국에 끌려만 다니는 가련한 제 처지도 모르고 풍수없이 놀아대다가 집권 1년도 못되어 주변국들의 태도와 조종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어디에도 의지할데 없는 불쌍한 고아신세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온한해동안 외세의 죄과 사대매국에 매달리며 굴욕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해온 보수당국에게 차레진 결과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한국)의 처지가 샌드위치신세가 되어가고있다.》, 《(대통령)의 결치체외교로 《(한) 반도에는 열강들의 세력다툼에 끼여 끌려다녔던 구한말시대가 재현되고있다.》고 개탄하면서 《강대국의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해법을 내놓으라.》고 들이대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당국자의 실태뿐만 해외행각에 대한 《치적》자랑을 늘어놓고있으니 이야말로 소가 웃다 꾸미미 러질노릇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남조선보수당국이 굴욕외교의 실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외세에게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고 날뛰고 있는것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자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대통령에게 매달려 《한미동맹강화》와 반공화국체결공조를 애걸하였다.

현실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쓸개빠진 굴욕외교, 친미사태행위가 계속되는 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세는 나날이 격화될것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손이 민족의 운명을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지게 한다는것은 우리 민족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굴욕적인 외교가 가져올 파국적후과를 똑바로 알고 부질없는 구걸음을 걸어치워야 한다.

김철호